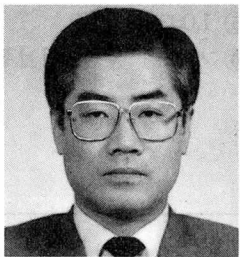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증후군 (SYNDROME)



金 鎔 大

〈현대전자 정보영업본부 이사〉

흔히들 복잡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어떤 극적인 결과를 성급하게 보려는 욕구때문에 치밀한 설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야에서 목격하게 된다.

프로그래머일 경우 구조적 분석과 설계를 완성하기 이전에 성급하게 먼저 코딩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일부 TV프로듀서는 완전한 대본과 계획 수립을 하기전에 촬영을 시작하는 수가 많다.

유명한 현대 건축물 중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꼽을 수 있는데 웅장한 하얀 지붕이 시드니만의 돛단배처럼 솟아있는 것을 사진이나 실물을 통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이와 비슷한 종류의 건축물을 지어본 적이 없는 건축가에 의해 구상되어 설계되었고 6년내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정책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설계없이 착공되었다.

결국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처음 설계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지붕은 철골 위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그 무게가 물경 2만8천6백톤이나 된데다 일시에 슬라브(SLAB)구조로 올려지도록 되어버렸다. 처음 설계대로라면 지붕은 2194개의 구조물로 조립하도록 되어있었고 하나의

무게는 10톤 정도였다.

그러나 한 슬라브 구조로 만들려고 하다보니 엄청난 시간과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컴퓨터로 재설계하여 몇 조각으로 나누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지붕의 모양이 바뀌어 버렸으며 대신 20개의거대한 기둥을 갖는 건축물이 되었다. 게다가 무대의 앞부분 아치와 무대장치가 쓸모없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비용이 수백만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초기 설계시의 건축비용은 7백만달러로 견적되었지만 건축물을 완공시키고보니 그 10배가 넘는 무려 1억달러 이상이 들게되었다. 또한 6년 걸려 완공될 예정이던 것이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6년 이상이 걸렸다. 건축물이 완공된 후 건축계약자는 이렇게 회고하였다.『이 건축물은 정치적인 압력의 제물이 되었으며 시행착오의 대표격으로 남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내 수명이 3년정도 단축되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설계하였더라면 공사기간은 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며 공사비도 5천만불 이하로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성급함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막대한 예산낭비적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증후군」을 주변에서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우리 속담에『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복잡한 일일수록 체계적이고 차근차근한 일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외부의 입김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무모하고 서두르게 하는 일일수록 돌발적인 사태가 더욱 빈번하게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같은 경우는 정보화추진의 현장에서도 발견된다. 데이터 처리분야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압력 또는 정보처리에 관한 최고경영층의 무관심과 무지예다 안일하게 생각한다는데 있다. 엔지니어들의 시스템 설계의 향이나 주장이 묵살되는 많은 경우를 보아오지 않았던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증후군은 동·서양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사람들은 일을 서두르고 그 결과가 예상밖일 때 불안에 떨게 된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MIS 추진시 해당부문의 두려움을 보면

- ① 변화에 대한 두려움
- ② 과거에 관리되던 것이 관리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 ③ 정식이 아닌 절차, 비효율적인 작업수순, 숨겨져있던 데이터 등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점
- ④ 데이터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는 점
- ⑤ 데이터를 수정·유지한다든지 자기 고유의 목적으로 은닉할 수 없게된다는 점
- ⑥ 단말조작을 충분히 터득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 ⑦ 자리를 잃는다든지 전문이 아닌 분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 ⑧ 데이터 소유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최고경영층은 이러한 두려움에 앞서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선부른 지식과 급한 성미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증후군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고도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VAN구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설계엔 이상이 없으며 기초는 차근차근 다져지는지 우리의 무모함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곳은 없는지 한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굳이 국가적 차원을 예로들 필요도 없이 기업차원에서도 실패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엔지니어들은 정보화 되어가는 사회의 제반부문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증후군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이다.